

# 철강 불황 속 포스코 경영실적 개선

### 1분기 영업이익 6598억원 전분기 대비 93.7% 늘어 포스코차이나 등 실적 호조 2년여 재무구조 개선 성과

포스코가 올 1분기 5.3%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며 경영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철강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포스코의 연결기준 1분기 경영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12조461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3405억원보다 3193억원 증가한 659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분기보다 221.9%(2430억원) 증가한 3525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부문의 매출과 이익은 감소한 반면 철강부문과 포스코 대우, 포스코차이나 등 트레이딩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콘퍼런스를 기업설명회(IR)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날 “해의 철강법인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중국 장가항포항철강과 포스코메시코는 흑자 전환했고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와 베트남 포스코 SS-VINA의 영업적자폭도 축소되는 등 해외 철강법인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포스코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5조7671억원, 영업이익 5821억원, 당기순이익 44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6.8%

(2109억원)와 70.3%(1841억원) 증가했다. 포스코의 실적 개선은 중국 철강사의 구조조정 가시화와 탄소강 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시황개선과 함께 포스코 고유의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프리미엄(WP)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WP제품 판매량은 368만2000t으로 전분기 대비 25만5000t이 늘었고 전체 제품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전분기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별도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3.9%포인트 오른 10.1%를 기록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무구조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줄어든 77.0%로 집계됐고 별도기준으로는 전분기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9.2%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기준으로는 현금성 자산의 총액이 차입금보다 많아져 순차입금이 전분기 3413억원에서 -3563억원으로 개선됐다. 지난 2년여간 노력해 온 재무구조개선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경영쇄신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계열사 구조조정도 1분기에 6건이나 마무리했다. 포스코는 발전부문 계열사인 제네시스를 매각했고 포스코러시아 청산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포스코그린가스텍의 합병도 완료했다. 포스코는 올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목표 58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광양=백영진기자 pyj4079@



## 광주은행, 화순아동센터에 ‘공부방’ 13호점

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1일 오후 4시, 화순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3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3호점으로서 선정된 화순지역아동센터는 화순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광주은행은 공부방 내부 벽면 누수 공사와 도배, 공부방에 필요한 책장과 책상, 도서를 선물해 아이들이 밝은 분위기에 공부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에 들어갈 제습기와 간식을 준비해 선물하고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영수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들의 학습 장소이자 쉼터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공사대금 상승 체불 건설사 대표 12명 공개

건설공사 대금을 자주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22일 열어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을 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자’인 업체들로 현재 10곳이 총 245억 6000만원의 하도급대금(7억7000만원)·장비대금(182억5000만원)·자재대금(55억 4000만원) 등이 밀려 있다.

상습체불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체불해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표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이 첫 시행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명단을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소명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 3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대상들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000만원 아래로 낮춘 다음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다. 소명 기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로 명단을 공표할 상습체불 건설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 받는다. /연합뉴스



삼성 무풍에어컨 ‘신바람’ 23일 삼성전자 에어컨 전문 설치 기사들이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에서 바람 없이도 시원한 삼성 무풍에어컨 ‘Q9500’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기아차 중국 누적 생산·판매 4백만대 달성

기아차가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세운 지 14년 만에 누적 생산·판매 400만대를 달성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2년 중국 장우성 엔진에 동펄우에다와 합작으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 이후 지난 해까지 390만8457대를 만들어 판매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14만309대를 추가 생산했다. 기아차 중국공장의 누적 생산·판매는 3월 말 기준 404만8766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엔진에 2007년 2공장, 2014년

에 3공장을 차례로 건설하며 꾸준한 생산 능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지 생산·판매 100만대를 달성한 이후 2012년 200만대, 2014년에는 300만대 고지를 차례로 넘어섰다. 기아차가 400만대 생산·판매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차종은 K3와 K2다. 준중형 모델인 K3(전신인 포르테, 쉐라토 포함)는 누적 158만8225대가 팔려 전체 판매량의 39%를 차지했다. 기아차의 중국 시장 진출 초기에 현지 전략

모델로 투입한 소형 차종인 K2(프라이드, 천리마 포함)는 112만3877대(전체의 28%)가 판매됐다. 기아차 중국공장은 2002년 프라이드와 천리마 등 2개 모델의 생산을 시작해 현재는 K2, KX3 등 12개에 달하는 차종을 생산 중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형 스포티지를 투입하는 등 신차 출시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청년에게 호감가는 中企 발굴·홍보”

### 광주상의, 광주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청년간 구인구직 미스매칭 완화방안을 주제로 ‘제49차 광주고용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기업체, 대학, 청년, 고용창출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직자 성향과 연계한 취업매칭 활성화와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과 홍보, 기업 체험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미스매칭의 갭을 축소하고 정책 제고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주제발표자인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발굴, 홍보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정보 미스매칭 해소”라며 “임금, 근로복지 개선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기초해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타깃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하창용 광주고용센터 소장은 “광주지역의 미스매칭은 숙련수요 대비 과잉학력의 공급으로 발생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일학습 병행제 추진과 일자리의 광역 매칭 활성화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과 가치유형을 조사·분석한 ‘광주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이라는 연구발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 성향 테스트지를 만들어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매뉴얼이나 기업들의 구직자 홍보전략에 활용함으로써 미스매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서는 청년과 기업체 당사자, 대학, 지역 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중소기업-청년간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9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5	8	16	21	29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95,411,375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3,210,970	50
3	5개 숫자일치				1,478,905	1,799
4	4개 숫자일치				50,000	90,504
5	3개 숫자일치				5,000	1,512,397

##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색은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샐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연합건설** 1599-7652  
광주·전남지사 NAVER 연합건설 검색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심보

## 이제 땅땅거리고 사십시오!!

# 2016년 토지 재테크 성공전략 무료 세미나

당신이 미처 몰랐던 토지의 미래까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 진단

### 서남해안의 대이벤! 집중분석 서남해안 최고의 투자 Point!!

강사 : 재테크전문강사, 현지 실전문가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날짜 : 4월 27일(수) 오후 2~4시, 저녁 7~9시  
주관 : 코아토지재테크 상담소  
천호연사 : (갈대의 순정) 가수 박 일 남 (전국 예능인노블드합연맹 위원장)

예약전화 ☎ 062)576-7955  
※ 당일 혼잡하오니 사전예약 필수 바랍니다